지역 메아리

김제보건소, 요양병원 집중점검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병원급 13개소에 대해 8월 10일까지 의료기관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예방의약관리담당과 위생관리담당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급식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으로 요양병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과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허가사항 임의변경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던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발생에 대해 아직까지도 시민의 불안과 관심이 크기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 를 점검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용 후 폐기 등 처리방법과 재사용 가능 기구·물품의 멸균 소독 관리에 대해서도 지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아이티엔지이너링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시연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아이티엔지니어링(대표 김석주)은 지난 19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전기차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자와 통신 분야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인 ETRI가 주관으로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전기 완성차 제조 기업인 ㈜아이티엔지니어링이 그간 참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모바일로 차량을 호출하여 탑승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폐자원 수집상 환경정비

김제시에서는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불법 폐기물 방치에 따른 토양 오염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000㎡ 이상 신고대상 고물상의 신고 여부, 폐지·고철·폐포장재 등 취급 품목 이외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행위 및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국도비 확보

김제시, 공덕농협·에쿠스영농조합법인 등 2곳 선정
쌀 수급안정·신 농가 소득원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김제시는 들녘경영체의 쌀 생산중심에서 타 작물(콩·감자·조사료 등) 및 이모작(맥류)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해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사업에 2개소가 공모해 국·도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들녘경영체의 쌀 생산중심에서 타 작물(콩·감자·조사료 등) 및 이모작(맥류)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해 쌀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사업에 2개소가 공모해 국·도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다각화는 들녘경영체가 규모화로 발생한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일반 벼 중심의 소득 구조를 다원화하여 참여농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김제시는 2009년부터 논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그간 들녘경영체 14개소(4,835ha)를 육성해 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덕농협(쌀보리떡가공설비 등)과 에쿠스영농조합법인(감자 선별장 등)은 2019년까지 40억원(개소당 2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여건을 활용한 가공·유통·체험사업 등 지원으로 매년 32억원 이상의 매출액과 1,1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쌀값 하락에 따른 신(新) 농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김제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서상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지속되는 쌀 과잉공급 기조속에서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를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김제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 6차 산업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 30일까지 의정활동 돌입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20일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30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임시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8대 김제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본격적인 첫 의사일정으로, 첫날인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후의 일정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2층 소회의실에서 14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1개 실·과·소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는 30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온주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8대 김제시의회가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버스로, 걸어서… 완주 여행 편해져요"

군 문체부 관광안내체계 공모 최종 선정… 3억 확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걸어서 완주군을 관광하기가 쉬어진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8년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3억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란 대중교통을 사용하거나 도보로 여행하는 개별 관광객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말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가능한 곳을 공모했으며 서면심사, PT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완주군과 부산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관광거점별 안내표지판, 대중교통 안내시스템 등 사용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이동성, 선호도 등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완주군은 지난 18~19일 양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 목소리 듣다

완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실무분과 간담회

완주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완주군은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해 사회복지의 최일선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400가구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보장조사(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 분석보고와 심층 면접조사에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완주군은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담아 향후 4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할 전략목표와 과제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완주군의 관심과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